



[산업] 삼성·LG 초고가제품 정면승부 06



Life

[라이프] 현대백 판교점 피아제 부띠끄 오픈 명품쇼핑 메카로 니



인권 캠페인·치료병상 앱... 코로나에 맞서는 세계 도시 정책

코로나19 극복 '세계 도시 동향'

일본, '차별 금지' 인권 존중 캠페인
말레이시아, 1년간 자택 앞 영업 허용
인도, 앱으로 치료병상 정보 공유

코로나19 시대 인권 침해를 막는 캠페인부터 자택 앞 영업 허가, 치료병상 정보 실시간 공개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정책을 내놓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일본 교토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집단 괴롭힘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근 일본에서는 확진자와 그 가족, 일본 거주 외국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에 대한 비방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방송인 하마사키 마리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치료병상 정보 예. /델리 코로나 앱

교토시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부당한 차별, 편견 등 타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차별 금지와 인권 존중 및 배려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은 '힘내자, 인간. 지키자, 인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교토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생활스타일'을 보급하는 한편 장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이해와 배려를 호소했다.

시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촉각 등이 예민해 마스크가 피부에 닿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거리두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시각장애인은 안내자가 없으면 QR코드 활용이나 체온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품 구매 시 손으로 확인하길 원하는 데 이런 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주민들을 위해 집 앞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18일부터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재고비용,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했다.

이에 슬랑고르주는 최대 1년간 자택 앞에서 영업을 가능한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주기로 결정했다. 허가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해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위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홍성아 통신원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매장 운영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델리 코로나' 앱을 보급해 지역 내 주요 병원의 치료병상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지역 단위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인

델리 코로나는 관내 주요 병원을 공공 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분류하고 산소호흡기를 보유한 집중치료병상, 코로나19 관련 병상을 구분해 총 병상 수와 점유 병상 수, 사용 가능 병상 수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민간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기존 4800루피(약 7만3000원)에서 반값인 2400루피(약 3만7000원)로 줄여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착 국가에서 음성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는 출국 승객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을 국제공항에 구축, 검사 후 바로 출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코로나 앱으로 치료병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확진자수 급증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을 낮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항 입출국장에 검사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청계천 하수처리장, 역사체험관으로 재탄생

국내 1호 하수처리장, 역사공간으로 국제설계 공모작 '최소의 개입' 선정

국내 최초의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현장 역사관으로 되살아난다. 핵심 시설인 하수펌프장(984㎡)은 건축적 개입을 최소화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외부공간(1만1500㎡)엔 생태습지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옛 청계천 하수처리장 일대를 청계하수역사체험관으로 재생하기로 하고 '최소의 개입'(건축사사무소 토도·대표 김재윤)을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산업화시대의 유산이자 국내 최초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를 보존하는 절제된 콘셉트를 제안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최소의 개입'. /서울시

했다. 하수펌프장 내부에 있는 구름다리 형태의 관람동선은 기존 건축물이 갖고 있는 공간 특성과 자연이 어우러져 색다른 즐길 거리를 만들어낸다. 관람객들은 천장 틈새에서 들어오는 빛의 줄기, 기계로 가득 찬 어두운 곳에서 지하수가

반사하는 빛의 잔물결, 유입관로를 통해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 소리를 느끼며 이곳이 물의 통로였음을 알게 된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8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11월 착공, 2023년 5월 체험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12.5만대 보급

올해 목표 25% 초과달성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를 12만 5000대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25% 많은 수치다.

시는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200억원(10만대)의 조기 소진이 예상돼 추가 예산 50억원(2만 5000대)을 확보해 지원했다.

내년에는 시의 국비 예산 감소에 따라 지원 대상 보일러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효율 개선이 필요한 주택용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 시 10년 이상 보일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일, 제조번호가

표시된 보일러 명판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이다. 반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20ppm으로 8분의 1에 불과하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친환경 보일러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삼성·신한카드 친환경보일러 구매 시 3·6·12개월 무이자 할부와 신한카드 6개월 이상 미이용 고객 대상 5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시는 덧붙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청년채용博' 오늘부터 온라인 개최

3주간 청년들에 일자리 선택 기회 제공

'2020 경기도 온라인 청년채용 박람회'가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청년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폭넓은 일자리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도내 기업에게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주기 위

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시작돼 그동안 1956명의 청년이 참여해 15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처음 온라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에게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기업 추천, 기업에는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구직자 연계, 양쪽 모두에게는 '온라인 화상 면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IT ▲교육 ▲제조 ▲화장품 ▲자동차 산업 ▲식품 ▲광고·홍보 등 여



러분야의 중견, 중소기업 80여곳이 참여해 온라인 채용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력서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주는 온라인 컨설팅과 줌(ZOOM)을 활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회관도 마련된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0 | 해질 17:17

11월 23일(월)
음력 : 10월 9일

수도권 날씨
-2 ~ 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7/6, 동두천 -5/6, 파주 -6/6, 가평 -6/7, 서울 -2/6, 양평 -4/7, 양주 -1/6, 수원 -1/5, 용인 -1/5, 평택 -5/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